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위험성에 대한 의견서

다음은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의 위험성 및 비교육성에 대한 동물자유연대의 의견입니다.

1. 사고 발생 위험성

돌고래는 친근한 이미지와는 달리 강한 공격성을 지닌 바다의 최상위포식자로 1989년에서 1994년까지 미국에서만 12명이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 도중 팔, 다리, 얼굴 등이 부서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최근에도 2006년 쿠바에서 돌고래 체험을 하던 성인 여성이 돌고래에 들이받혀 갈비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으며, 2012년에는 미국 올랜도 씨월드에서 돌고래 먹이주기 체험을 하던 8세 소녀가 팔을 물리는 부상을 당했고, 올해 2월에도 미국 텍사스 씨월드에서 9세 소녀가 팔을 물리는 등 사고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되고 있습니다. 모두 '거제씨월드'의 돌고래 체험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체험 프로그램 도중 발생한 사고입니다.

미국 캘리포니아 대학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일반 관람객이 아닌 전문 훈련을 받은 사육사의 52%(총 251건)가 사육 중인 돌고래, 흰고래(벨루가) 등의 해양포유류로부터 공격을 받아 부상을 당하거나 사망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는 경험이 풍부한 사육사라 하더라도 200kg이 넘는 공격성을 띤 돌고래를 제어할 수 없으며, 체험 프로그램 시 사육사가 동행한다고 해서 심할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하는 사고를 막을 수는 없음을 보여줍니다.

2.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성

돌고래와 같이 수영을 하거나 먹이주기, 허그 등 돌고래와 직접 접촉하는 행위는 브루셀라병, 기회감염성 박테리아 감염 등의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원인이 됩니다. 돌고래의 호흡이나 배설물을 통해 감염되는 브루셀라병은 오한, 두통, 식욕상실, 근육통 등을 유발하며 심할 경우 유산과 불임까지 초래하며, 기회감염 박테리아 감염의 경우 어린이나 노인 등 면역력이 약한 사람에게 폐렴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호주의 고래 및 돌고래 보호협회(WDCS)는 이 같은 인수공통질병 감염의 위험성을 들어 돌고래와 수영하거나 접촉하는 행위를 자제하라고 권고하고 있으며, 국내 전문가들 역시 언론을 통해 돌고래와의 직접 접촉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올 수도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3. 돌고래 체험프로그램의 비교육성

돌고래 체험이 아이들에게 교육적 효과를 준다는 주장은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야생 돌고래를 의인화 하는 쇼를 관람하거나 뽀뽀를 하는 등 동물에게 인위적인 행동을 강요하는 체험은 아이들에게 돌고래의 생태를 왜곡하는 비교육적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야생동물을 생명이 아닌, 입장료를 내면 마음대로 만지고 접촉해도 되는 오락의 대상으로 인식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부디 학생들에게 벌어질 수 있는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하는 본 단체의 의견을 진지하게 검토하시어, 귀 학교에서 거제씨월드 관람을 자제해 주시기를 요청 드립니다.